

금융권 장애인 고용, 협약을 넘어 현장으로 -장애인공단, 은행권과 함께 첫발

- 장애인 고용 확대 협약 후,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 협약기관 협의체 구축 통해 협력과제 발굴, 장애인고용 방안 마련 등 실행력 강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4월 7일(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6일 체결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장애인 고용확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업권별 현장 소통과 실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은행·금투·생보·손보) 체결('26.3.6.)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개 은행 인사 부서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채용 및 고용유지 지원제도, 직무개발 사례, 맞춤형훈련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안내했다. 아울러 은행 업종에 맞는 중·장기 장애인 고용 확대 전략과 단계별 이행계획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금융 업무 내 맞춤형 직무개발로 2019년부터 장애인 노동자 185명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행과 최근 발달장애인 연주단 '신한 쏘(SOL)레미오'를 창단한 신한은행 등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현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은행권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 기업은행의 신규 직무개발을 통한 185명 고용

- 맞춤형 직무 개발, 정년 보장, 유연근무 등 장애친화형 근무환경 조성
- 전문 심의형, 디지털 상담형, 금융사고 모니터링 등 4개 직렬 총 25개 신규 직무 도입

▶ 신한은행의 '신한 쏘(SOL)레미오'

- 발달장애인 연주자 30여명을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환경 제공
- 전용 연습공간 조성, 다양한 공연 기회 확보 등 전문 연주자로서의 성장 지원

최근 금융권은 포용금융 문화 조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스스로가 장애인 고용 여건을 살피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구성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금융권 전반에 장애인 고용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 컨설팅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고용컨설팅부	책임자	부 장	고인철 (031-728-7075)
		담당자	차 장	문영경 (031-728-7055)

